

2년 만에 러브소나타 막 오른다!

10월 27~28일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당신도 당신 가족도'
25일부터 홈페이지와 전화로 참가자 및 봉사자 모집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러브소나타 집회가 2년 만에 열린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오는 10월 27일(수)과 28일(목) '당신도 당신 가족도'를 주제로 막 오른다.

27일 오전 9시 30분 야마간현민홀 스튜디오1에서 교회부흥세미나, 오후 7시 야마간현민홀 대홀에서 가스펠나이트, 28일 팔레스그란델 호텔에서 리더십포럼, 오후 7시 야마간현민홀 대홀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원생중계로 러브소나타 집회가 진행된다.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포럼은 일본어로만, 러브소나타 집회는 한국어 통역이 지원된다. 러브소나타 집회실황은 온누리교회와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교회부흥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김경훈 집사(구글 코리아 디렉터)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하중 장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주제로 강의한다. '가스펠나이트'에는 야마가타 출신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출연하고, 사토 아키라 목사(후쿠시마 제일성서침례교회)가 '광야에 길을'을 주제로 설교할 예정이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에는 소프라노 김영미,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 ABC-Tokyo 발레단,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샌드애니메이션 박진아 작가 등이 게스트로 출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에 열린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연하고,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 성도들은 10월 25일(월)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참석 예약시스템'이나 '온누리교회 예배예약'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 봉사자도 선착순 모집한다. 봉사자들은 10월 28일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중보기도와 러브소나타에서 사용할 선물(종이비행기, 야광봉, 마스크, 전단지 등)을 포장할 예정이다. 전화(02-570-7415)로 신청하면 된다.

야마가타 현지 실행위원회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러브소나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개 협력교회가 전도대상자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하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야마가타는 순교의 피가 뿌려진 지역이다.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시

에 있는 '야마하라 키리시탄 순교 유적'은 일본 유수의 크리스천 순교 성지이다. 1629년 1월 12일 크리스천 53명이 눈보라 속에서 처형당했다. 순교자 중에는 한 살, 세 살배기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문의: 02-570-741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성경암송퀴즈쇼 및 공모전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 '기독교콘텐츠 아이디어'

CGNTV가 성경암송퀴즈쇼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을 개최한다. 성경암송퀴즈쇼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톨레레게'에 나오는 성경구절 204개를 암송하고, 해설에서 출제되는 퀴즈를 푸는 대회다. 3천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지급된다. 10월 22일까지 CGNTV 홈페이지에서 사전참가자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CGNTV는 기독교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도 모집하고 있다.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1993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자만). 제안서(16:9 비율)를 슬라이드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11월 7일까지 아래의 QR 코드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QR코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수, 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전 세계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10월 31일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어진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 봉사자로 참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10월 27일(수) 오후 5시~7시, 오후 7시~9시 시간대 기도 봉사자가 부족하다. 봉사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희 성도는 "진실로 태아의 생명과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

문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배송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쌀' 배송이 시작된다. 지역별 쌀 수확 시기를 고려해서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은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지의 농어촌 협력교회에서 배송한다. 오배송 건은 사회선교본부 이웃사랑팀에 문의하면 주소를 확인한 다음 다시 배송한다.

문의: 02-3215-3434



생명을 위한 소중한 한마디

•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낙태 문제,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울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 이낙용

• 기도하는 나부터 생명권이 행복권에 우선하며, 잉태 이후 낙태는 살인임을 깨닫고 회개와 실천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무명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아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저 자신이 회개하고 홀대거리 젊은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내내 눈물이 끊이지 않았고, 주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무명

• 다음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에 보이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딸,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왔습니다. / 무명

• 신생아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무시하지 않고, 생명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 김유선

•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고 갑니다. / 변대섭

• 자살 아니면 타살하지 않게, 낙태하지 않게 생명의 초심과 생명의 중요함, 그리고 생명의 경각심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 김유선

•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인간의 오만함을 회개합니다. / 이용경

• 성 윤리가 처참히 무너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하나 되어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 홍바울

•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태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 전환이 있도록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 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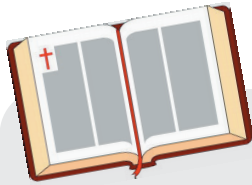
•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낙태에 대해 깊이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단순히 혼전순결만 강조했던 것에 나아가 우리 이웃을 돌보는 시각을 갖도록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야겠습니다. / 무명

•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낙태 없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 윤석일

• 임신이 되어 8주째까지 태아(fetus)이기에 마치 인간이 아닌 듯이 일부 연구자들은 홀대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임을 잘 아는 바이고, 그러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대생들에게 태아의 존엄성을 가르쳐 왔었다. 그러나 막상 내 자신이 홀대입구 3번 출구에서 엄마 몸속의 생명이 귀한 생명이냐 낙태하지 말라는 피켓을 드는 일은 사뭇 새로운 경험이었다. 홀대입구에 있는 공원을 땅 밟기를 하며, 여성의 자유 결정이라는 미명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낙태법의 합법화, 일부 정치인들이 입법화하려는 성 결정권의 조장 및 동성애 합법화 등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거역하는 행위가 멈추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다. 공원 안의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한국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 학생들, 연인들 모두가 창세 이전에 계획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각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각인하셨고, 노동자처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다. 더 나아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있고, 그러기에 순종하며 매일 매일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 가길 기도드렸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귀한 영혼이기에 해를 거듭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며,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가며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해 보았다. / 성주명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10월 2일에 다녀왔습니다. 1시간 일찍 가서 먼저 홀대 주변을 돌며 땅 밟기를 하며 홀대거리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홀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 신기하게 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습니다. 기도 순서가 되어 팻말 앞에 서서 눈앞에 있는 기도문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먼저는 기도 장소 뒤가 흡연 장소라 담배 연기가 좀 힘들었고, 눈을 감고 있으니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잠시 울려 눈물이 났습니다. 낙태라는 문제와 나는 상관없다고 외면했던 저의 모습과 저의 깊은 내면에 낙태를 하거나 문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저의 냉소적이고 비난하는 마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선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자꾸 눈물이 나서 마스크가 젖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 담배 연기도 눈을 감아서 오는 두려움도 어느 순간 저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후 다음 순서로 기도하시는 분에게 자리를 맡기고 저는 목사님께서 주시는 기도문과 낙태 관련 자료를 들고 주변에 앉아 중보를 했습니다. "내 자궁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대답은 "당신의 자궁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궁의 아기는 당신의 몸이 아닌, 독립된 인간이며 당신이 돌봐주어야 할 당신의 자녀입니다", "임신 중단을 낙태가 아니라 임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등 말씀에 근거한 낙태 반대 운동 자료를 보며 저의 지식의 무지함이 부끄러웠고 기도를 하며 홀대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청춘남녀들, 커플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보고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왜? 코로나19에 사람 많은 홀대에서 기도운동?'이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여기서 기도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광고를 볼 때 사실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 이 시대의 저출산에 일조한 것 같은 부담감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먼저는 회개를 하게 하였고, 이후로 캠페인 기도문을 집중해서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귀함을 고백하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며 낙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알리는 귀한 사역자들과 중보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문 내용 중에서 한 글을 기도로 올려 드리며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저희의 말이 아닌 삶을 보고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 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 조은정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온누리교회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에 성함과 한 줄 소감을 남겨주시면 온누리신문과 온누리교회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재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언제나 양 측면에서 공격합니다. 좌측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악에 치우친 통치자일수록 교회를 핍박한 것이 역사 증거입니다.

우측에서의 공격은 복음을 변질시킴으로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전략입니다. 어느 시대든 주된 흐름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질서를 거부하며, 인간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왕이 되려는 사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영지주의가 있었고,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또 진화론, 유물론 등 수많은 사상이 교묘하게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까지 진화론적인 시각과 무신론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세속주의적인 사상으로 복음을 왜곡하려는 흐름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변질시키는 흐름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율법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도 시대 유대인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오류를 지적하고 교정해 준 책이 ‘로마서’입니다.

둘째, ‘반율법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아닌 방임으로 흐르게 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문제를 지적해 준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셋째, ‘갈라디아주의’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율법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인간의 행위, 노력, 선행으로 믿음을 보충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유대인에게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교정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 이외의 것에 대한 저항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세워진 교회

들을 교훈하기 위해 썼습니다. 갈라디아는 매우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대부분을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여행한 지역은 남부 갈라디아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3~14장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디베, 비시디아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전도했습니다. 때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행적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로 세워진 신교적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믿음을 보충해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합해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른바 갈라디아주의, 신율법주의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를 휩쓸고 있는 신율법주의, 갈라디아주의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첨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첨가했고, 이 시대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첨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상을 첨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급한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쓰인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매우 격앙되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고, 훼손시키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게 되면 바울의 감정이 상당히 절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기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정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복음을 알려주셨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분노가 마틴 루터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

는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충실한 교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경건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직후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이상 교회를 지배해 왔던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외의 것을 말하는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첨가함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상당히 절제된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독일 귀족들이나 여러 곳에 자신을 항변하면서 쓴 논문을 보면 교황을 가리켜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고, 교황청을 가리켜 악마의 소굴이라고 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저주한 것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로마 교황청의 심각한 부패와 신학적인 오염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킨 것에 대해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신교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트(저항자들)’라고 합니다. 권력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복음 이외의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저항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불타오른 것입니다. 진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편에 서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편에 서는 자를 붙들어 주심으로 마틴 루터에게서 시작된 저항의 불꽃이 유럽 전역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 외의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말했던 것 같은 심령이 루터에게 있었습니다. 1천 년 이상 교회를 지배했던 것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 외에 인간의 행위와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면죄부가 극에 달했습니다. 악한 열매의 극입니다. 인간의 죄를 돈으로 사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면죄부입니다. 마틴 루터는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인간의 선한 행실은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참된 삶의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선한 행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행위를 더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또다시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원리에 의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기 철학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이 수많은 민족에게 전해질 때마다 다른 복음, 복음 이외의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교회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유교를 믿고 있고, 주자학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형태를 보면 남녀를 완전히 구분해서 ‘ㄱ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교회 내에 여전히 신분이 존재해서 양반과 종들이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유교 사상과 신분, 여러 구습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자신의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청년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그를 장로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 교회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인도의 견고한 신분제가 뚫지 못한 것을 복음으로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분 철폐가 빨리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인도나 다른 나라처럼 여전히 신분이나 남녀차별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차별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때로 복음이 한 사회에 들어가면 타협을 합니다. 복음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가톨릭이 이런 타협을 많이 했습니다.

(14면에 계속)

그곳에 가면 '전도자'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함양 광월교회 최성봉 목사와 어울림함양 청소년 합창단

지난 9일(토) 경상남도 함양으로 출발했다. 함양 광월교회(경남 함양군 병곡면 마평아랫길 1) 최성봉 목사와 '어울림함양 청소년 합창단(이하 어울림 합창단)'을 만나기 위해서다. 어울림 합창단은 함양군에 딱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 합창단이다. 함양에서는 '2021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막바지 행사가 한창이었다. 이날 어울림 합창단은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문화공연 일환으로 열린 '힐링음악회'에 전문 음악인들과 함께 초청공연을 했다. 순박하고 담백한 어울림 합창단의 공연이 보는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어울림함양 청소년 합창단이 연습하고 있다(왼쪽). 새로운 벽화가 그려진 함양 광월교회(오른쪽).



함양으로 가는 길이 고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속도로 정체가 심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초조했다. 어울림 합창단의 공연을 못 보면 어쩌나 걱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무려 8시간 만에 함양 광월교회에 도착했다. 광월교회에는 반가운 선객(先客)이 있었다. S브릿지공동체에서 온 12명의 아웃리치 팀원들이다.

S브릿지공동체는 지난 10월 8일(금)부터 11일(월)까지 광월교회 벽화작업을 했다. S브릿지공동체 광월교회 아웃리치는 두 번이나 연거푸 끝을 성사되었다.

“농어촌선교팀 소개로 7월에 아웃리치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바람에 8월로 미뤄졌습니다. 8월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번에 겨우 오게 되었습니다. 아웃리치가 두 번 연기되고, 상황도 썩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팀원들이 흔쾌히 귀한 시간을 내줬습니다.”

S브릿지공동체 아웃리치 팀원들은 광월교회 담벼락에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렸다. 친근감있고, 따뜻한 그림을 보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며 그렸다. 송용자 팀장(S브릿지공동체)은 벽화를 그리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었다.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우리가 그린 벽화를 멈춰서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팀원 모두가 ‘앞으로 광월교회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벽화에 담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힐링음악회가 열리는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으로 향했다. 문화예술회관은 함양군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랜드마크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어울림 합창단이 초청 공연을 한다. 최성봉 목사와 합창단원들의 얼굴에 흥분과 설렘, 자부심이 가득했다.

“오늘 초청된 음악인 중에서 유일한 아마추어팀입니다. 어울림 합창단원 모두가 문화예술회관에 초청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숨기지 못할 정도로 설쁩니다.”

힐링음악회가 시작됐다. 어울림 합창단의 공연에는 빼어난 기교나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도저히 눈을 땔 수 없었다. 말 그대로 힐링이 되었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담백하게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가 정말 일품이었다. 최성봉 목사도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어울림 합창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도움, 감동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온누리교회와의 인연

최성봉 목사가 함양 광월교회에 부임한 것은 2014년이였다. 늦깎이 신학생이었던 최 목사의 첫 번째 전임 부임지다.

“저는 대전 토박이입니다. 함양에는 아는 이도 없고, 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광월교회 청빙을 받고 처음 함양에 왔을 때는 정말 암담했습니다. 성도가 어르신 두 분밖에 없었고, 주

일학교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오고 싶지 않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함양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최성봉 목사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사역도, 지역도, 사람도 말이다.

“저는 시골에 살아본 적도 없고, 시골 목회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시골 목사님들처럼 농사나 공부방 운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광월교회와 주민들, 함양땅에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얻은 하나님의 방법이 ‘어울림 합창단’이다. 물론 우려와 반대가 있었다.

“청소년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고 주변에 도움과 기도를 부탁했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했습니다. 함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른 목회자 2명과 의기투합해서 어울림 합창단을 창단했다. 함양군 모든 초등학교에 홍보해서 공개 오디션을 보고 단원 14명을 선발했다. 그렇게 시작한 어울림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종 기관(요양원, 문화센터, 병원 등)에서 초청공연을 하고 있다. 단원도 서른 명으로 늘었다.

사실 청소년 합창단을 시골 교회 한 곳이 맡아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봉사자도,

단원들 간식도, 연습할 장소도, 운영 비용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어울림 합창단 창립을 함께 했던 두 명의 목회자도 빠졌다.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최 목사는 어울림 합창단을 놓을 수 없었다.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단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원들이 탈 수 있는 차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20인승 버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단원도 늘고, 어울림 합창단이 소문이 나면서 지역 곳곳에서 공연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합창단을 창단하고부터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월교회 최성봉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온누리교회와의 인연도 포함되어 있다.

“제가 처음 광월교회 왔을 때 온누리교회 갈렘공동체에서 아웃리치를 왔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잊지 않고 오셔서 벽화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갈렘공동체를 통해서 서빙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과 알게 되었고, 농어촌선교팀 소개로 이번에는 S브릿지공동체와 연결되었습니다. 또 온누리교회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들으시고 승합차를 기증해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로 인해서 광월교회가 변화되고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최성봉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광월교회가 경남서부 복음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다음세대들이 자라서 도시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온누리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후원문의: 02-3215-3434

크리스천의 정신건강

영혼의 빈 방을 하나님으로 채워라!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는 네 가지 방법



이정환 목사
(송파B공동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 저자)

“우리 집이 바로 창살 없는 감옥이야.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 죽겠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압박을 받을 때가 많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압박

을 받는다. 매달 다가오는 대출금 상환일, 직원들 월급일, 카드 결제일 등 벌기는 힘든데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이다.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다. 한 톨이라도 손해를 볼까, 가난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하다. 또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에, 어떤 사람은 쇼핑에 쫓긴다.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만 구매한다. 그러다가 구매하는 희열에 빠지면서 필요 없는 물건까지 계속 사게 된다. 이런 사람들을 더욱 자극하는 것은 쇼호스트의 다급한 목소리다. “고객님, 3분 남았습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든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중독되는 존재다. 물질에 중독되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게라도 중독되어 있다. 자녀, 성공, 건강, 종교 등 어느 한 곳에 빠져 노예처럼 산다. 중독의 시초는 인류의 시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뱀의 꾀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절대적인 존재였던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비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다른 것에 집착했다. 곧 중독 증세가 나타났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중독은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중독에 빠질 일이 없다. 공허하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중독이 된다. 웹스터 사전은 중독을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또는 강박적으로 자신을 몰입하거나 거기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중독은 과잉집착이 빚어내는 정신질환이다. 영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우상숭배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다양화될수록 중독 범위가 확대된다. 혼탁한 세상에서 무언가에 몰입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보통 아버지상이 없는 대신 어머니에 대해서는 소유와 거절의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방어기제 또는 내적 통제가 부족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고통을 잘 참지 못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욕구와 사회적 좌절감을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어떤 중독이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더 우울해하게 된다. 중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물질중독, 과정중독(무형의 행위중독), 행위중독(유형의 행위중독)이다. 알코올, 약물, 담배, 음식 등은 물질중독에 해당한다. 관계, 분노, 종교 등은 과정중독에 해당한다. 쇼핑, 운동, 도박, 성 등은 행위중독에 해당한다.

점검, 대체, 동역자, 예배

말씀을 바탕으로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삶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예방주시를 맞는 것처럼,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다. 생활습관, 움직임, 행동반경을 점검해서 ‘나는 정상’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갈 5:17).

중독됐다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사탕을 먹는다. 쇼핑중독은 대체로 외로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내면의 외로움을 달래는 데 집중하면 된다. 성 중독자 대부분은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도와줄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

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전 4:9~10).

혼자만의 의지로 중독을 이길 수 없다. 나를 도와주고 힘을 보태줄 동역자가 필요하다. 동역자가 있어야 의지가 약해질 때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중독은 내면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된다. 영혼의 방이 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힘들다. 내면을 채워야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333 예배법’을 제안하고 싶다.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하루에 성경 세 장 읽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묵상하기 등으로 영혼의 빈 방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중독을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는 두 개의 커다란 방이 있다. 하나는 영혼의 방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방이다. 대다수가 한 방만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한다. 또한 육체의 방을 채우기 위해 애쓰면서 영혼의 방은 뒷전이다. 그런데 육체의 방이 가득 차도 영혼의 방이 텅텅 비면 불행하다. 기대했던 행복은 온데간데없고 공허함만 증폭된다. 이 공허함이 우울함을, 우울함이 중독을 불러온다.

영혼의 방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 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채워진다. 말씀대로 살아가 노력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이 될 때 채워진다. 영혼의 방은 갑자기 채워지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무엇인가에 매이면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찾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생명의 말씀만이 감옥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예배하는 자리를 꼭 사수하

기를 바란다. 중독의 무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누구나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세상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것만 손에 쥐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다 눈속임이다. 중독돼도 괜찮은 대상은 예수님뿐이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 빠져야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하나님과 데이트

관계 중독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증상을 말한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혼자가 되는데 극도의 불안함을 느낀다. 관계 중독에 빠지면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자아가 사라진다. 이것을 ‘자기상실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자기상실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소신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남의 인정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한다. 나는 없고, 내가 만들어낸 나, 남들이 보는 나만 존재한다. 성경에도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이 나온다.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이다.

수가성 여인은 남자에게서 삶의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니다 싶으면 저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도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 남편 다섯을 보내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남에게 기대서도 행복할 수 없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도 외롭다. 사람으로는 절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비슷한 사람은 존재할지 몰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100% 이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여겨야 한다.

상태가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할 때면 나는 ‘하나님과 데이트’를 숙제로 내준다. 홀로 산책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 하나님께 일기 쓰기 등 그 방법이 다양하다. 세상에 중독된 인생은 메마르고 공허하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고, 영혼의 방을 가득 채우면 좋겠다.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기를 바란다.

더 큰 소리로 낙태를 반대한다!

먹는 낙태약 출시 임박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역할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성산생명
윤리연구소)

지난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주관으로 인공임신중절약의 허가를 심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기존 낙태죄가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자, 한 제약사가 해외에서 사용 중인 낙태약의 독점 공급계약을 맺고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했다. 비록 기존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지만 그렇다고 낙태가 합법이 된 것은 아니다. 아직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낙태죄를 지속시킬지 여부와 낙태 허용범위, 태아 생명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법의 공백 상태에서 식약처가 낙태약을 허가하려는 성급한 절차를 밟았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위험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약물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법조인들은 입법이 안 된 상태에서 낙태가 진행될 때 야기될 법적 혼란을 지적했다. 생명운동단체들은 생명경시를 불러올 낙태 약물의 허가를 원천 반대하였다.

반면 일부 인권단체들은 해외에서 이미 유효성이 확인되었으니 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수입한 약이 국내에서도 안전한지를 시험하는 가교 임상도 면제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 날 언론에서는 “가교임상 면제로 빠른 시간 내에 허가가 기대된다”는 내용만 다루었다. 기자들은 물론 식약처도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합구하기로 한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낙태가 합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성급한 낙태약 논의, 왜 문제인가?

일부 단체들의 주장처럼 낙태약이 안전하고 여성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허상이다. 작년 국내 개봉한 영화 ‘언플랜드(Unplanned)’에서는 낙태약의 실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이 낙태 클리닉 직원으로부터 알약을 받아 삼키면서 손쉽게 낙태를 시작한다. 다음날 급작스러운 복통에 잠이 깬 주인공은 토하다가 변기에 앉아 피를 쏟기를 반복한다. 그녀는 밀려오는 고통에 사위기 물줄기를 타고 다리 사이로 흐르는 핏물과 함께 핏덩어리 태아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죽은 태아를 떨리는 손으로 겨우 들어 변기 속에 떨어뜨린 후 피범벅이 된 흰 욕실 바닥에 태아의 모양으로 웅크린 채 쓰러진다. 남자에 대한 배신, 배려받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비참함, 내 안의 자녀를 끊어낸 상실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쉽게 삼킨 작은 알약은 여인이 홀로 감당하기

에는 너무 비참한 경험을 하게 했다. 엄마가 될 뻔한 여인의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 수술대에 오르든, 낙태약을 삼키든 간에 안전하고 손쉬운 낙태는 없다. 성급한 낙태약 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첫째, 의학적·제도적 문제점이다. 수입 예정인 낙태약은 임신 유지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억제해서 유산시키는 약 1알과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된 태아를 배출하는 약 4알로 이뤄진 콤비팩이다. 미소프로스톨이라 불리는 두 번째 약은 현재 식약처에서 소화기 궤양 치료로만 허가된 약물로, 강력한 자궁수축을 일으키는 부작용 때문에 임신부에게는 금기로 지정된 약물이다. 자궁과열과 출혈 과다에 따른 자궁 적출술, 자궁 외 임신 시 복강 출혈과 빈혈, 태아 기형 등이 생길 수 있다. 임신부가

수 있게 된 남성들로부터 여성의 몸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무책임한 남성의 낙태 강요 현상을 막을 수 없어 태아의 생명과 함께 여성의 존엄성도 무너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성(性)을 왜곡시켜 다음세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게 된다. 성교육 시간엔 낙태약 사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약사는 미래 고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낙태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낙태약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광고하며 안전한 낙태가 공중보건과 인권에 필수적인 것처럼 호도할 것이다. 왜곡된 교육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임신’을 경이로운 축복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병적인 존재로 여기게 된다. 다음세대의 순결하고 건강한 성을 낙태라는 상처로 얼룩지게 하면 안 된다.



“성도들은 죄악의 물결 앞에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 생명의 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복용 후 과다출혈과 패혈증으로 사망해서 의료분쟁을 겪은 약물이기도 하다. 비록 낙태를 목적으로 처방되었다 하더라도 임신부에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금기 약물을 처방해서 불법을 저지른 셈이 된다. 만일 태아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경우 신경계통의 기형 발생률이 3배 높게 나타나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식약처 스스로 이러한 이유로 금지한 약을 임신부에게 사용하라고 허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식약처의 책임이 너무 크다.

둘째, 생명윤리적 문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식약처의 정책에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약을 허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낙태약의 허용은 반드시 문화적 쇠퇴를 불러온다. 낙태약이 허용되면 단기적으로는 생명 경시 현상과 인간 존엄의 파괴가 가속화된다. ‘손쉬운 접근’이라는 이유로 태중 생명이 더 많이 죽을 것이고, 임신의 책임을 피할

낙태약 허가 심의는 태아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다. 인권단체들은 세계적으로 한 해 천만 건 이상 처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인즉, 천만 명 이상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식약처의 약물 허가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훨씬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정부가 제시한 낙태죄 개정안에는 16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된다면 이들이 부모 없이 홀로 약을 먹고 낙태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 때문에 낙태를 결정하지만, <여성의 낙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 의하면 낙태는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한다. 낙태 후 겪는 육체적 문제 이외에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자신의 일부를 잃은 상실감과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끊은 죄책감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느낀다. 낙태 과정에서 아무리 부모와 배우자, 상담자, 친구의 지지가 있

어도 정작 낙태 행위는 홀로 감당해야 하기에 소외감이 증폭된다. 생명을 품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정반대의 결정을 하는 것은 정신을 분열시키는 일이다. 낙태 행위가 시작되면 스스로를 인간 이하로 느끼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혼자서 몰래 낙태를 행한 경우는 두려움과 불쾌감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해야 하기에 주위와 단절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은 부부가 합의해서 낙태한 경우에도 나타난다. 아내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분노를 느낀다. 태아에게 애착이 없는 남편의 방관에 좌절하고 부부간 정서적 유대가 약해지기 쉽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남은 자녀에게 과하게 몰입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낙태 후 상실감과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 행복을 가장하고 지나치게 바쁜 척해 보아도 가족 내에서 생긴 심리적 외상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만드는 위험한 요소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낙태죄가 없어진 시대에 할 일은 무엇보다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성(性) 윤리교육과 인격교육이 필요하다. 가정과 생명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안전한 피임법을 가르치는 성교육이 아니라 잉태된 생명의 소중함과 순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임신한 아기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법에 따라 미혼모를 충실하게 지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미혼모 시설과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그들이 공부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제도와 교육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미혼모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성과 엄마로서 존엄성을 누리며 살게 해줘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이요, 자녀들이 낙태를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다. 대부분 젊은이 역시 자유로운 성관계나 낙태의 권리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을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본성이다. 지금 우리는 태아 살해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성도들은 죄악의 물결 앞에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 생명의 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낙태약의 출시를 앞두고 성도들은 더 큰 소리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에 들려주어야 한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낙태를 반대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렘 1:5). 대한민국에 낙태의 영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데이트 잘하는 다섯 가지 방법

“데이트 경험이 많이 없고, 이성과 만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소개팅을 몇 번이나 했는데 연애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대답이 시큰둥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 때는 어색한 마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데이트를 잘하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데이트를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설레는 만남이 무엇일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나는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그때 그 설렘과 두근거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역시 두 사람의 만남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이다. 비단 아담과 하와의 만남뿐만이 아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청년들이 데이트할 때의 기대와 설렘 역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날 때와 같을 것이다. 데이트의 기쁨을 느끼고, 만나는 이성과 관계를 잘 유지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데이트하는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데이트를 나갔을 때 한눈에 반할 만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형제자매든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임을 반드시 인식하기를 바란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상대가 마음에 든다고 극진하게 잘해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의 없게 행동하거나 말을 통명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충동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한다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 자신이 데이트하는 형제자매가 언제 회사 출장을 가는지 혹은 언제 고향집에 내려가는지 수첩에 기록해두면 어떻게? 대화하다 흘러들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보일지 몰라도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데이트 상대에게 섬세한 배려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일정을 잡을 때에도 매우 좋다.

셋째, 대화의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데이트하는 형제자매가 서로를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대화이다. 대화가 잘 될수록 데이트의 기쁨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의 데이트 경험을 들어보면 본인 이야기만 하거나 엉뚱한 주제를 꺼내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대화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데이트가 잘 된다. 넷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오픈하라. 간혹 데이트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상대에게 말하기 어려운 개인의 문제들을 너무 솔직히 털어놓는 청년들이 있다. 물론 상대가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큰 부담이 되어서 데이트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오픈하면서 기쁨의 데이트를 하기를 바란다. 다섯째, 작은 배려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데이트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 차를 마시

거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볼 때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유명한 맛집을 갔는데 가장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누구부터 먹을 것인가? 데이트 상대가 칭찬받고 싶어서 한껏 자랑이나 경험담을 늘어놓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척 사소한 문제일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해야 데이트의 기쁨이 오래간다.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데이트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는 청년들의 신앙과 삶의 고민이나 질문에 대해 대학청년부 목회자들이 조언과 격려를 건네는 코너이다. 고민 및 질문 보내실 곳: joo@onnuri.org



윤현규 목사
(갈렙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결혼 정원 가꾸고 돌보기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 해외로 발령을 받았었습니다. 함께 갈 수 없어서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 휴가를 써서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면 몇 주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해외 사업장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오히려 남편이 한국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부부가 아니라 남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요즘은 서로 전화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전화하더라도 일적인 이야기만 나누거나 때때로 짜증과 화만 내면서 대화를 끊기도 합니다. 몸도 마음도 멀어진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비동거 거주 형태를 취하는 부부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중에는 비동거 형태를 취하는 부부가 맞벌이 전체 부부의 4~5% 정도로 추정된다. 맞벌이하지 않으면서 비동거 거주 형태를 취하는 부부도 일정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 비동거 기간으로 보면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국내에 있지만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 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가 군인이라면 해외 파병됐을 때도 부부가 비동거를 비자발적으로 택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비동거하는 부부는 어떤 이유든 부부관계 측면에 특수한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차츰 부부 친밀감의 부족을 느낄 수 있다. 심할 경우 부부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사무적인 관계로 흐를 수도 있다. 자칫하면 부부의 대화가 가정의 대소사에 관한 일에 대해서 나누고 해결하는 ‘사무적 가정’이 된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거주 형태는 당연히 ‘부부가 동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결혼 정원의 꽃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자신들의 특수한 부부 거주 형태와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는 부부의 친밀한 대화를 나눠야 하겠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단계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차선책을 통해서 부부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녀 양육에 관한 일들과 가사 일을 떠나서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 배우자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자주 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몸이 떨어져 있는

“부부는 항상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고, 그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부부는 사회적 관계 형태의 동료 관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한다. 비동거 부부는 자신들의 결혼을 더욱 세심히 돌아보면 좋겠다. 결혼이라는 부부만의 정원에 심겨있는 다양한 꽃들을 상상해 보자. 정원에 심긴 꽃의 이름을 명명하자면, ‘사랑’, ‘신뢰’, ‘낭만’, ‘친밀’, ‘헌신’, ‘감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의 정원에 심긴 꽃들이 부부가 서로 돌보지 않아서 말라비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늘 함께 살펴봐야 한다. 부부만이 자신들의 결혼 정원의 꽃들을 가꾸고 돌볼 수 있다. 한쪽 배우자 혼자 애쓰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부부가 함께 이 꽃들을 돌보고 결혼의 정원을 가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큼 대화에서 중요한 ‘감정 단어’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겠다. 가능하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결혼과 부부관계에 관한 교재를 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가정 훈련 과정을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부부 상담 강의를 찾아 함께 듣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동거 부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약속이다. 만남을 약속한 날 짜를 반드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부부 관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가장 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내 버리는 것이 부부의 관계와 부부의 약속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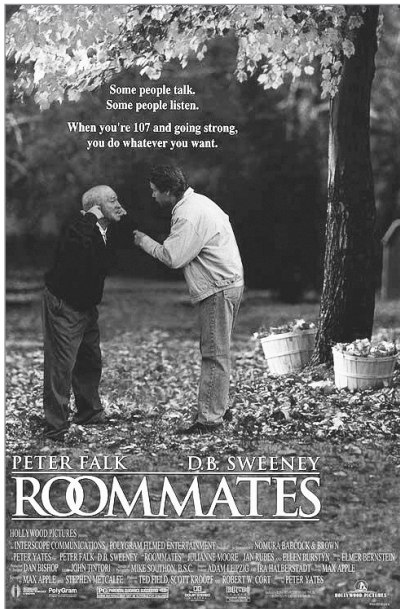
가 있다. 비동거 부부는 몸이 떨어져 있으니 만남의 우선순위를 사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일정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습관처럼 만남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면 부부 관계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비동거 부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부부의 비동거로 인한 분리 상태가 너무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편안함이 오히려 부부관계에서는 경고등이라고 여기면 좋을 듯하다. 때때로 부부관계, 혹은 결혼 생활의 불편함이 부부가 성장하게도 하고, 하나 되게 만들기도 하는 양분이 된다. 분리 상태가 너무 편안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현재는 비동거이지만 부부는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항상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고, 그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부부의 결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 결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부가 늘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아름다운 결혼 정원을 가꾸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영화 읽어주는 목사

임마누엘과 워드 지저스!



룸메이트(Roommates)

피터 에이츠 감독 | 1995년 개봉 | 코미디

1995년 11월 27일 월요일, 지금의 아내가 된 여인과 여섯 번째 만나던 날 나 홀로가 아닌 연인(戀人, Lover)으로서 첫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다. 당시 상영관은 1999년 20세기와 함께 폐관되어서 다시는 돌아가 볼 수 없는 종로 '코아아트홀'이었고, 함께 본 첫 영화 제목은 '룸메이트(Roommates, 1995, 피터 에이츠 감독)'였다.

매우 심하게 부끄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당시 27세 젊은 노치형 나름대로는 '연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결혼하고, 부부의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물론 당시 그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상영관은 비록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 나와 아내는 1996년 결혼했고, 2021년 현재 25년째 룸메이트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룸메이트'라는 영화는 나에게 매우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영화요, 생각할 때마다 미소와 평안을 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 '룸메이트'의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면, 연인과 함께 보는 잔잔한 호수 같은 로맨스가 아니었다.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폭풍우를 겪어가는 가족영화다. 이 영화는 원작자인 '맥스 애플'이 실제로 자신의 할아버지와 겪었던 생활을 기록한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1963년 무일푼이고, 무식한 상황에서 폴란드에서 미국 피츠버그로 건너온 이민 1세대 77세 할아버지 록키(피터 포크 분)가 주인공이다. 그는 친척들에게 괴팍하고 완고한 고집불통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근면 성실하게 빵집을 운영하면서 '가족은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이다. 그러던 어느 날 5

살 때 엄마를 잃고 월남전에서 아빠마저 하늘로 떠나버려 애처로운 고아로 자신 앞에 서게 된 손자 마이클(D.B. 스위니 분)과 '룸메이트'가 되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동거를 시작한다. 이 특별한 동거는 록키가 107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영화는 '괴팍한 노인 vs. 귀찮은 손자'가 룸메이트로 살면서 경험하는 세대 간의 갈등과 감동을 그려냄으로써 관객을 웃게 하고 울게 하는 반전으로 이끌어갔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할아버지 록키가 손자 마이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늘 네가 자랑스러웠다."

영화 '룸메이트'를 떠올리면 지금까지 생생한 장면들이 있다. 그것은 영화감독이 이 영화를 전개하는 화면 구성 방식으로 한 장소를 폴샷으로 잡아 4번 보여주는데, '동일 장소의 4계절'을 표현한다. 이는 시간의 흐름과 록키의 마음을 표현한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변하는 것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지만, 변하지 않고 함께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생에서 깨달을 때 진정한 룸메이트를 만나게 된다는 메시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2021년 10월, 홀로 남아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할아버지 록키와 홀로 남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순간을 겪어낸 손자 마이클을 엮어주었던 '룸메이트'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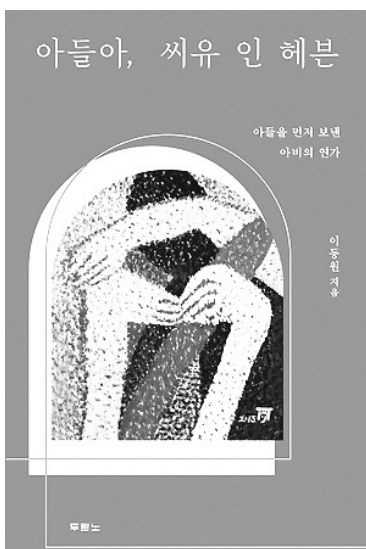
말이 포스트 코로나 세계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따뜻한 말 아닐까 생각한다.

2020년 이후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족(혼자)'라는 글자와 공통된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뜻의 '족'을 합쳐 만든 신조어) 문화'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삶의 경계가 더욱 복잡해졌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나 혼자 있을 때'가 전염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함께하는 공동체 없이는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을 되찾아 줄 방법이 무엇일까? 언제나 모든 혼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I am)"라고 말씀해주는 '임마누엘(God is With Us)'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세계의 중심으로 다가오신다. '워드 지저스(With Jesus)', 예수님과 룸메이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한다.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두란노 신간

“천국에서 보자(See you in Heaven)”

《아들아, 씨유 인 헤븐》
이동원 저 | 두란노 | 13,000원

보내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한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고, 신앙으로도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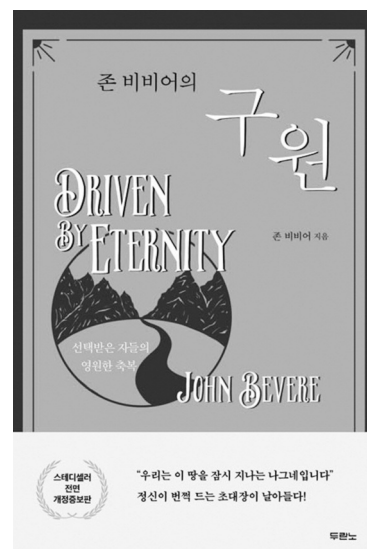
“천국에서 보자(See you in Heaven).”

이토록 가슴 시린 말이 또 있을까? 언뜻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에 담긴 말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해아릴 수 없는 슬픔이 담긴 말이다. 이 슬픈 말이 책 《아들아, 씨유 인 헤븐》의 제목으로 쓰였다.

책 《아들아, 씨유 인 헤븐》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름, 42세)을 대장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지난 1년 동안 그리워하며 작성한 글들을 엮었다.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간 아버지의 글은 시와 노래, 기도로 바뀌어 이 책에 담겼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곧 다시 만나지는 담담한 고백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는 글, 아들의 빈자리를 보며 매일 우는 엄마를 위한 기도,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를 부탁하는 기도, 아들 지인들의 추모사까지 아들에 대한 기억과 기도를 고스란히 담아두었다.

또한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를 먼저 천국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삶

《존 비비어의 구원》
존 비비어 저 | 두란노 | 20,000원

올린 삶이 허망하게 무너지기 전에 재건축하라”고 권면한다. 얼핏 좋아 보이는 것들에 삶의 에너지를 쏟다가 정작 부름을 받은 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흘러가는 오늘을 붙잡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멈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쌓아왔던 열심과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그날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이 책은 저자 존 비비어가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위해 저술한 책이다. 지난 2007년 국내에 소개되면서 큰 영적 소동을 불러일으켰었다. 이번에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더욱 절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질문들과 소모임에서 활용하기 좋은 질문 코너도 있다.

《존 비비어의 구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애퍼벨'에서 이 땅을 상징하는 '엔텔'로 보내진 독립, 미혹, 겹쟁이, 이기심, 참사랑이라는 다섯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을 설명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면 정신이 번쩍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부질없는 수고로 쌓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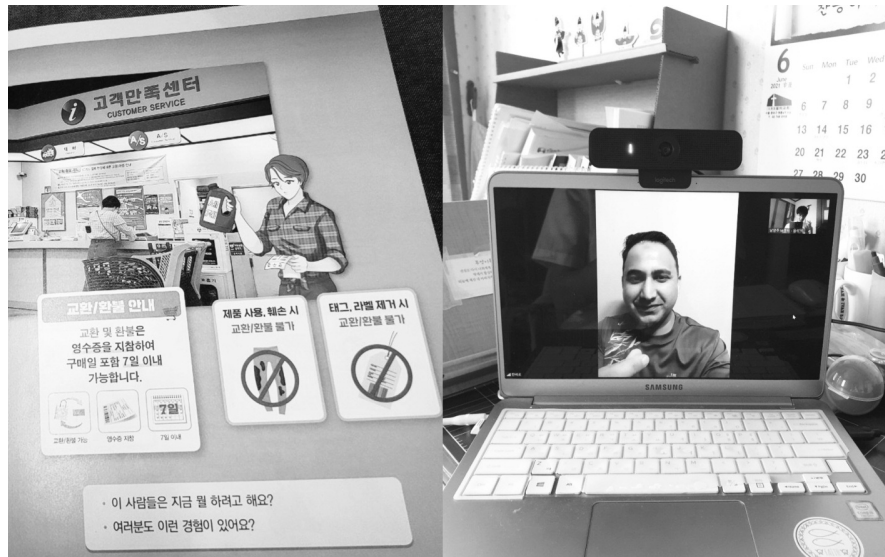
 **코로나19, '한국어 선교'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선교학교 스태프 간증

‘hallyu’(한류), ‘mukbang’(먹방), ‘kimbap’(김밥), ‘oppa’(오빠) 등 26개 한국말이 옥스퍼드영어사전(OED)에 실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한국어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대거 실리게 된 것은 한국 드라마(K-드라마),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등 한류의 세계화 덕분이다.

나는 이 모든 현상과 한류 부흥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한글’ 덕이라 확신한다. 현재 이 땅에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와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17년 한국어선교학교를 개설했다. 한국어선교교사들이 M센터, 난민센터, 햇빛트리니티 외국인 유학생들을 온라인(Zoom)으로 가르치고 있다(한국어티칭스쿨). 새롭게 한국어 교육의 장이 열리고 있다.

19세기 말 조선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과 소통할 방법이 없었다. 대동강을 따라 복음 전하려다 순교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은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없는 한문 성경이었다. 복음전파에 고심하던 선교사들은 조선에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조선말 ‘훈민정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선교사들은 조선인들과 함께 성경



한국어선교학교 수료자들이 이주난민 학생에게 교재(사진 왼쪽)를 활용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을 조선말로 번역했고, 매서인들을 통해 일반 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했다. 선교사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하면서 너무 잘 맞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해 했다고 한다.

일본에 사절단으로 간 양반 출신 이수정이 회심했다. 그는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경임을 깨닫고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 한글 번역 성경을 받아들이고 제물포항에 입국한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다. 한학자 이수정의 번역 성경은 조선의 지식인이 쓰는 서울말이어서 후일 성경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분제도와 한문에 막혀 90% 이상이 문맹이던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해지면서 빛이 임하고 깨어나기 시작했다.

고종의 요청으로 1986년 최초의 공립학교 영어교사로 온 할버트는 조선 학생의 눈을 열게 하려고 조선말로 지리교과인 〈사민필지〉를 자신이 가져온 인쇄기로 찍어 배포했다. 그 이후 서재필과 함께 독립신문을 발행 및 인쇄했고, 주시경을 추천해서 교정을 보게 하고, 띄어쓰기를 도입하며 한글 문법의 틀을 세우는 데 일조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노력과 행적들로 인해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켜낼 수 있었고, 지금의 문화대국 한국이 있게 된 거라 할 수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위대한 업적이었지만, 조선 말까지 사용되지 않고 유명무실했다. 그런 한글을 선교사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번역해서 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게 되면서 세종대왕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 할 수 있다.

한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교와 부흥이 일어났듯이 이 땅에 나그네로 찾아온 이주민과 이방 민족에게 한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져서 함께 잘 사는 나라들이 되기를 바란다. 최일선에 서 있는 한국어선교학교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한다.

/ 이성우 집사(한국어선교학교 실행팀장)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수료 간증

편안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또 따뜻하게

결혼 12년 차인 우리 부부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 부부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부부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을 신청할 때도 이미 부부 상담과 부부 프로그램을 수없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8주까지 과정에서 지금껏 살면서 깊이 나눌 수 없었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알아가고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여러 검사 도구들이 좋았다. 서로 대화를 나누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막연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기 훨씬 수월했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깊은 사랑과 기도도 좋았다. 인도자, 강사님, 소그룹 코치님 등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들의 파스함과 편안함으로 인해 성령



김설희 성도(분당B공동체)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소그룹 모임은 아름다운 동행의 꽃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 조에 딱 세 가정만 분배되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진밀감 속에서 서로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격려하며, 돌아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 참가하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다. 결혼 생활 12년 동안 나도 모르게 혼자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많은 아픔과 외로움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던 것 같다. 내 외로움과 힘든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고, 그런 마음을 전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고, 대화 방법을 몰라서 화내고 싸우며 상처를 주고받던 시간을 위

로받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을 시작하고 몇 주 지나 부부 싸움을 크게 하고는 ‘이제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큰 절망에 빠졌던 기억이 있다. 절망 속에서 “그만 두겠다”고 소그룹 코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보듬어 주시면서 권면해 주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또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을 제시해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다.

정말 이보다 귀하고 값진 사역이 또 있을까. 부부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한다. 부부의 회복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한 알의 밀알로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두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서로를 등지며 깨어진 채 살아갔을 우리 부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우리 부부도 언젠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한다.

/ 김설희 성도(분당B공동체)

   코로나19, '이웃'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인천동산교회에서 온 편지

샬롬. 인천동산교회 최베드로 전도사입니다. 주님의 몸 된 온누리교회와 W청년부 Acts29 사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 W청년부의 Acts29 사역을 통해 인천동산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며 동역해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W청년부 Acts29 사역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용품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문제집과 선물, 든든한 끼니를 챙길 수 있는 식재료, 러시아어 성경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지원해주신 방역용품으로 인천동산교회는 어려움 없이 철저하게 방역하며 사역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넉넉하게 구입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성도님들의 감사 인사를 이 글을 빌려 대신 전합니다.

지원해주신 문제집으로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일대일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새



W청년부는 Acts29 사역을 통해 인천동산교회 다문화가정을 섬기고 있다.

문제집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천동산교회의 일대일 학습지도는 교회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Zoom)으로 모든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전달해주신 식재료로 다문화가정 아

이들을 위해 토요학교 점심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토요학교 점심시간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학교 점심도시락으로 매주 주먹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함께 모여 먹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아이들을

위해 계속 점심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로 거주하시는 사할린 어르신 반찬 나눔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선물해주신 폴라로이드 카메라 덕분에 토요학교가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아이들에게 사진을 한 장씩 찍어주면 정말 기뻐합니다. 곧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 촬영하면서 추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이수한 성도님과 성경책이 없는 성도님들께 러시아어 성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성경책을 선물 받으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선물 받으신 성도님들께서 '내 성경'이 생겼다는 것을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청년부 Acts29 사역을 통한 사랑의 손길이 인천동산교회의 다문화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물질과 기도로 동역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사역을 새롭게 계획하고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최베드로 전도사(인천동산교회)

   코로나19,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ECD센터 졸업식

NGO 더멋진세상은 미취학아동들을 위해 영유아발달센터인 'EC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에는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마을과 가훈도마을 ECD센터에서 졸업식이 있었다. 나도 선생님들과 함께 졸업식을 준비했다. 손수 졸업식을 준비하는 것을 꽤 어려워했지만 준비를 마치고 뿌듯해하는 선생님들과 좋아할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보람찼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렌드는 혼자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과 함께 졸업식장을 꾸밀 수 있어서 좋았다.

졸업식 때 공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초등학교에 갈 준비가 되었다", "ECD센터를 다닐 수 있어 행복했다"는 아이들의 고백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너무 풍족한 시간이었다.

포토존에서 각 가정의 사진을 찍고 인화해서 선물했다. 아이들과 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뿌듯했다. 사진을 많이 찍어보지 않아서 어색해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 감사했다.

졸업생들에게 가방과 필기도구, 간식 등을 선물했는데 이 가방에 얹힌 에피소드가 참 많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리카 르완다ECD센터에서 미취학아동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있다.

다. 르완다 가훈도마을에서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재봉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제 가방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ECD센터 졸업생들을 위한 선물을 재봉교실에 의뢰하면 서로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 샘플을 받아봤더니 너무 예뻐다. 그래서 졸업선물을 수제 가방으로 결정하고 재봉교실 선생님들과 함께 필요한 재료들을 사러 갔다. 그런데 재료

준비에서부터 문제가 참 많이 발생했다. 수도에서 재료를 구매할 때는 분명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을에 와서 봤더니 몇 개 재료들이 다르고, 부족했다. 그 덕에 여러 번 수도를 다녀왔다. 또 수제 가방 샘플은 선생님 제작해서 박음질도 잘 되어 있고, 온전한 가방의 모습이었는데 학생들이 만든 것은 부족함이 많았다. 학생들도 한두 개씩 만들 때

는 완성도가 높았는데, 기한을 두고 수제 가방 60개를 만들어야 해서 그런지 실수가 잦았다. 중간점검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수제 가방이 몇 개 없었다. NGO 더멋진세상 로고도 붙이려고 했는데 로고 모양이 원형이라 자르고 붙이는 게 어렵다고 했다. 이제 막 재봉을 시작한 수강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랬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교사님과 마주 앉아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재봉교실 선생님들과 수강생들에게 피드백을 들어보기로 했다. 재봉교실 수강생들은 "재봉기술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재봉기술로 자립을 하는 게 가능할까"를 고민하며 동기부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르완다에서 가훈도 재봉교실과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해서 자립에 성공한 'IZUBA'라는 공방을 알게 되었다. IZUBA 공방을 찾아가서 가훈도마을 재봉교실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를 부탁했다. IZUBA 공방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가훈도마을 재봉교실 수강생들이 재봉과 자수를 배워 자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태도와 자세가 많이 변화되었다. 앞으로 가훈도마을 재봉교실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된다.

/ 권소향 PM(NGO 더멋진세상 르완다지부)

졸업식과 수제 가방



NGO 더멋진세상이 리모델링한 봉제사업장에서 몰도바 뽀가네슈티 마을 주민들이 봉제를 하고 있다.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이루어졌다”

NGO 더멋진세상 몰도바 뽀가네슈티 개발사업

NGO 더멋진세상이 동유럽 몰도바 뽀가네슈티마을에 식수관을 조성하고, 봉제사업장 리모델링을 했다. 식수관 조성으로 뽀가네슈티마을 420가구, 주민 1366명이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됐다. 봉제사업장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대

하게 한다.

뽀가네슈티마을 도지사는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이루어졌다”면서 “몰도바의 다른 지역 개발을 위한 모범사례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나라다. 인구 20%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뽀가네슈티마을은 극빈촌 중에서도 극빈촌으로 손꼽힌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19년 보건소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뽀가네슈티마을 개발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성경적 부모교실, 4기 기도학교

세상의 혼동 된 교육으로부터 자녀의 미래와 영혼을 지켜내도록 돕는 ‘성경적 부모교실’ 세미나가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발견하도록 안내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보기, 자녀후계 18계명, 유아기와 결혼마가, 자녀의 마음 듣기, 떠나보내기 등을 주제로 이기복 교수<<성경적 부모교실>> 저자)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10월 25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실제적인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세미나 ‘4기 기도학교’가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성경적인 중보기도의 이해, 중보기도의 의무,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델 및 중요성 등을 주제로 박춘광 목사(신동탄지구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회비는 15만 원이다. 10월 26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www.duranno.com/biblecollege)에서 들을 수 있다.

문의: 02-2078-3263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방역 활동 확인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캠퍼스 방문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예배여건 조성을 살피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캠퍼스 방역 활동 확인 방문을 한다. 10월 17일 평택, 강동, 남양주, 24일 양재, 도곡, 부천, 31일 대전, 수원, 양지, 11월 7일 인천, 안산M센터, 태안, 서산캠퍼스를 방문한다.

안전관리분과위원들이 각 캠퍼스를 방문해서 캠퍼스 안전실행위원을

격려하고, 체크리스트를 따라 캠퍼스별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일반 시설 및 안전관리 점검(건물구조, 화재안전, 설비 및 안전관리), 코로나19 관련 점검(발열 검사, 명부, 손소독제 비치 여부, 의자 배열 및 QR코드 부착 시행 여부, 자연 환기, ‘위드코로나’ 전환 대비 안전 관련 시설 및 인력 배치 준비 등)을 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통일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23일부터 매주 토 오후 8시 온라인

온누리통일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구글 폼(하단 QR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등록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등록할 때는 이름, 소속, 출생년도를 보내야 한다. 회비는 2만 원(교재비 포함)이다.

온누리통일학교는 ‘분단된 한반

도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통일 역사’, ‘통일 준비와 교회의 사명’,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용서와 화해로서의 통일’ 등을 주제로 강의와 성경공부,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문의: 010-4337-5927



접수 QR코드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10월 23일부터 매주 토 오후 4시 온라인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22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40명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4만 원이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자아상 회복’, ‘뒤틀린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010-2539-5665

와이무슬림 훈련생 모집

10월 26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와이무슬림 훈련생을 모집한다.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31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교재 개별 구매).

와이무슬림은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 신앙체계의 발전 과정들을 배

우며 무슬림을 이해하고, 무슬림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슬람 역사·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 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 이해’, ‘한국의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010-9604-6080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요!”

차세대 어드벤처 ‘창조주 하나님’

차세대 어드벤처 ‘창조주 하나님’이 한창이다. 차세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배우는 과정이다. 차세대 예수님의꿈아이(이하 예꿈), 꿈이자라는땅(이하 꿈땅) 소속 학생들이 대상이다.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차세대 어드벤처 ‘창조주 하나님’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꿈은 His Show 창조 교재, 꿈땅은 창조과학회 키트를 활용해서 가정 내 소그룹 모임을 한다. 각 가정에 배부된 창조 VR 영상도 시청한다.

차세대 어드벤처 교재에 나오는 만들기나 색칠하기, 창조 VR 영상 시청 소감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일.하.세.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10월 23일부터 매주 토 오전 10시 온라인

일.하.세.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3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15명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무료.

일.하.세.아카데미는 기독교적 세계관, 직업관, 문화관, 재물관, 성공

관, 대인관계, 일터영성 등을 배우며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일터에서의 삶과 예배’, ‘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일터문화’, ‘일터에서의 성공’, ‘일터와 재물’, ‘일터에서의 대인관계’, ‘일터에서의 신앙성장’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010-3488-5382



야마가타 기·도·제·목

- 10월 18일(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
- 10월 19일(화) 일본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소서
- 10월 20일(수) 가스펠나이트를 통하여 믿음의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 10월 21일(목) 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결신자들이 넘치게 하소서
- 10월 22일(금) 80여 개 야마가타 교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 10월 23일(토) 준비하는 과정과 봉사자와 스태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 10월 24일(일)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소서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김동산 성도(인천온누리교회)

주님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2019년 인천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에 교수님 두 분이 오셔서 창조와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다. 그때 그 강의가 창조과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동기부여가 됐다. 그날 이후 기독교 변증과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고, 내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창조신앙스쿨을 신청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자세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리처드 도킨스가 버스에 난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귀찮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배우면서 방주의 회복성과 파랑안정성이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모형시험을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 방면 전문가들이 주님을 변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 무결한 마음이 들었다. 세상에서, 학계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과학자들과 교수들에게 주께서 상 주시기를 기도한

다. 우주 미세 조정에 대해 공부하면서 왜 지구가 특별한지 알 수 있었다. 태양의 안정성, 지구의 자기장, 딱 맞는 거리, 목성과 토성 소행성대를 통해서 유성 파편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세심한 설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지구의 크기에도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 자전과 공전 속도, 자전축의 기울기, 달의 역할까지 수많은 미세조정을 통해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중력 상수나 우주의 밀도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뿐 아니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곳까지 주님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세계관이 확장된 것은 물론이고, 파워웨이브 학생들에게 이 믿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전도할 때 배운 내용을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다. 나를 통해 다음세대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아굴라, 브리스가 선교사(중동 E국)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중동 E국은 국민 36%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9월부터 모든 학교가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20여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방을 가면 한결같이 교육센터도 다시 열어 달라고 합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대면수업을 시작했으니 저희 교육센터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원하는데 저희는 아직 정식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소개해드렸던 영어를 잘하는 시리아 난민 M 형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반응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M 형제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정방문 전에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나, 아직 복음도 전하지 못했는데’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가정방문이 위험한데, 언어공부에

더 집중할까? 센터등록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등록 후에 할까?’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저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M 형제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추방의 위험도, 언어의 부족도, 바쁨도 더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가정방문을 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난민후원이 줄면서 여성 가장과 고아를 제외하고 도시 난민들의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얻고 먹고 살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난민의 삶이 길어지면서 소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할 때, 영원한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박선근, 권미정 부부(가정사역공동체)

남는 것은 감사뿐이다!

젊은부부학교를 수강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1주 차 강의를 들을 당시 백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돌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내용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젊은부부학교 스태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정신없이 시작했던 젊은부부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돌아봤더니 남는 것은 감사뿐이다.

우리 부부는 젊은부부학교 선배 가정의 나뉘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많은 부분에 기도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배 부부들처럼 우리 부부도 지금의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다. 조장님과 조원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

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롬 10:13~15).

우리 부부에게 젊은부부학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과 같았다. 전하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젊은부부학교에 모여 있었다. 그분들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는 것 같다.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다. 우리 부부는 매주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또한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은부부학교는 우리에게 복음과 같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목사님과 섬겨주신 모든 분, 함께 교제했던 부부들에게 감사드린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미수 성도(수원온누리교회)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훌쩍 자란 아이와 갑자기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아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인간적인 걱정이 앞섰다. 이미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친 집사님께 전화해서 어땠는지 물어보고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싶어 신청했다.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는 꼭 사단의 방해가 있다. 경계하면서 최대한 감정을 상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막상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고 보니 아이는 엄마와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대했다. 맛있는 간식은 필수였다. 아이와 수다가 길어져서 한 과를 두 번에 나눠 하기도 하고, 유치한 것 같은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

모태신앙으로 늘 말씀을 들으며 자라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 때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었다.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아이를 보면서 감사하고 놀라기도 했다. 아이에게는 나뉠의 생각과 이야기가 있었다.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아이의 고민을 듣고 또 한번 놀랐다. 기도제목을 나

누고 아이의 중보기도를 받을 때에는 마음이 울컥했다.

매번 교재에 나와 있는 키(Key)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 삶의 방향과 모습을 한 눈에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나눌수록 부끄러운 것이 많았다. 그림에도 아이를 이만큼 성장시킨 하나님 은혜에 새삼 감사가 절로 나왔다. 성경을 옛날이야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오늘 우리 삶 안으로 들어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나누고 기도했다.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중보기도하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사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때 오늘 나눈 믿음의 말씀 한 절을 확신하기를 기도한다. 아이의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셔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장로칼럼

일대일제자양육은 은퇴가 없다

홍기명 장로
(부천온누리교회)

“일대일제자양육이 없었더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늘 일대일제자양육을 할 때마다 양육자로서의 자책감과 감사가 함께 느껴지곤 한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언제나 내 안에 가까이 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고민하고 회개한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양육할 때마다 똑같다. 아직 까마득하게 멀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는 위안받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느껴진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여전히 쉽게 결정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마주하곤 한다.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찌하실까’ 하며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습관과 시간이 내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특히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6)는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었고,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어떤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1996년 6월 경부터 시작된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의 내부사역은 물론이고, 타지역 타교회, 요청받은 외국의 교회들에게까지 이르는 대외사역을 해왔다. 꾸준히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로 인하여 일대일제자양육 상황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온라인(Zoom)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 요즘에는 부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인천 성광교회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동반자와 양육자 40여 명씩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한 차례 양육이 끝나고, 8월부터 두 번째 양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인천 성광교회와 부천온누리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할 수 있었겠나 싶다. 조그마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성광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믿음, 그리고 부천온누리교회 양육자들의 서슴없는 거룩한(?) 참여가 이를 극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 같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동반자와 양육자가 함께 자라고,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길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감사하다. 큐티를 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 말씀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일대일제자양육 교재에 메모해둔다. 이는 받은 은혜 한 토막이라도 더 나누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다. 양육이 끝나면 매번 아쉽고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대일제자양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한 양육자들이 끊임없이 제자를 재생산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앞서 고백한 것처럼 일대일제자양육을 할 때마다 나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못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으면 반드시 할 것을 권면하고 싶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 분명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사회일터에서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시무장로를 은퇴하고, 사역장으로 섬기고 있다. 하지만 일대일제자양육에는 은퇴가 없다. 나는 주께서 부르시는 곳에 있을 것이 다.

권사칼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안숙향 권사
(서빙고공동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다녀왔다.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며 회개하고,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다. 전에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만 가지고 피상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전부

였다. 그래서인지 이번 캠페인에도 덩달한 마음으로 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회개가 터져 나왔다. 그 동안 낙태 문제를 두고 깊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휘몰아쳤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눈물이 느껴졌다.

홍대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 살짝 흘기며 제 갈 길 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한 생명의 소중함이 그들에게도 깨달아지고 전해지기를 기도했다.

관심을 보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조그마한 희망을 발견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도 진리를 향한 마음이 숨어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숨겨진 진리를 향한 마음을 깨는 캠페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내게도 낙태의 아픔을 겪을 뻔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첫 아이를 낳을 때 입덧이 굉장히 심했다. 아이를 너무 힘들게 낳고 그 뒤로는 아이 낳을 생각을 못 했다. 그런데 둘째가 생겼다. 둘째가 생기고 첫째 때의 아픔을 잊고 기쁨으로 출산을 택했다. 그런데 셋째가 또 생겼다. 이번에는 나이까지 많은 상태였다. 내

임신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너 낳으려고?”라고 말씀하셨다.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신앙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며 충격이 컸다. 아직도 종종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과 그 모습이 생각날 만큼 뇌리에 깊이 박혔다. 셋째 아이를 낳았다. 셋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다. 모든 가족에게 귀히 사랑받는 아이다. 사람의 상황과 욕심으로 아이를 지냈더라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를 볼 때마다 생명을 지켜냈던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10주 된 태아의 발 모형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었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 캠페인에 참여했는지를 함께 나누며 아이들의 생각을 물었다. 셋째가 “10주밖에 안 된 태아가 이렇게 사람 형상을 갖추는 거야?”라고 놀라며 물었다. 아이들에게도 낙태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이 실제적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부모인 내가 더욱 깨어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낙태를 두고 찬반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40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운 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살린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낙태법 반대에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와 무릎을 꿇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도회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태아와 산모를 위해 꼭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에세이

변대섭 목사
(성북공동체)

자녀들이 선지자 요나에 관한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앞에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준 박영굴이 시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외쳤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

다!”

다섯 살 둘째 아이가 이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마디 했다.

“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좋은데.”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어린아이의 생각이었지만, 새삼 깊이 느껴지는 통찰이었다. 모든 생명에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

이 있다. 어린아이에게도 이 방향이 자연스럽다. 생명의 가치는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윤리 기준의 중심이 되었다. 생명의 원리, 죽음의 결과 및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철학과 사상, 종교가 탄생했다. 기독교 역시 생명과 죽음을 정면으로 다룬다.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 17:3).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 이 문장은 생명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생명 수호가 선하고 의로운 이유는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 수호 의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점을 찍는다.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멸(永滅)을 원하지 않으신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건져내어 온전한 생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은

생명예찬(生命禮讚)

진히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대한 생명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생명에 두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제적 논리도,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도, 선하게 여겨지는 어떤 사회적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선하시므로 생명은 선하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실천적 메시지를 던진다.

첫째, 어떤 생명도 사람의 뜻과 논리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 셋째, 모든 문화는 자연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생명 주시는 주님을 닮아 삶에서 작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나의 생명을 주는 희생을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살피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해야 한다.

2년 전 막내 아이가 생후 29주 조기태반박리

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태어났다. 심폐소생을 거쳐 겨우 살려낸 아이의 생명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맡겨져 심장 수술, 기관지 폐렴, 뇌출혈로 인한 수두증을 겪으며 많은 고비를 넘겼다. “주님, 살려주시시오!”라고 매일 간절히 기도드리며 발견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였다. 미숙아, 위중한 신생아임에도 관과 호스에 매달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음에도 아이가 가진 생의 의지는 강렬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생명에게도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고 계셨다.

생명이 존귀한 이유는 생명을 주신 분이 지존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은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 땅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생명을 상대화하며 경시하고,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 생각하고, 물질과 욕망의 흐름에 생명이 밀려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생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 이외의 것이 복음을 제한하고 훼손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오직 믿음이 아닌 행위가 더해짐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기본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믿음 이전에 ‘오직(sola)’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회에 들어온 교사들에게 흥분하는 이유는 오직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갈 5:1).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를 종으로 얹매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버킷리스트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사상, 철학, 교육, 문화, 교양, 법과 제도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요,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전가(imputation)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 시각에서 한 단어로 이해한다면 ‘전가(imputation)’입니다. 세 가지 전가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전가되어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생산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죄의 유전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에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를 인간의 노력이나 문화, 교육이나 교양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발전해서도 그렇습니다. ‘문화(culture)’라는 단어의 기원은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인간의 죄성을 덮는 차원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을 덮는 것이 문화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생명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 철학도 여기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

떤 행위, 공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더하라고 요구한다면 다른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라는 열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의롭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행실을 고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의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에게서 만일 선한 행실이 나온다면 그것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변화된 것뿐입니다.

복음 외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완성해야 한다는 신율법주의, 갈라디아주의에 대해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마디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모두 처리되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로움이 성령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에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속 깊은 곳 깨끗한 물은 공짜입니다. 가장 맑은 공기도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는 모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것을 가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면 우리 안에 복음 이외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고, 분별해 내고, 그것을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강소선, 박을남(가명) 두 분 어머니께 쌀과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청명한 가을벌이 비추는 정오에 어두운 쪽방에서 겨우 문밖으로 나온 두 분께 주님의 은혜로 여생 동안 연약한 육신이 회복돼 행복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내일 찾아뵙는다고 미리 전화를 드리고 도착했는데 어르신이 미리 문밖에 나와 기다리며 그간에 겪었던 숏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네요. 그것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듯이, 길게 기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정신없이 기도를 하자 제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구제봉사주일(매월 마지막 주일) 서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지역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한 서빙고 이웃사랑팀 자원봉사자들이 남긴 50여 개 보고서 일부이다. 이웃사랑팀 봉사자들은 매월 50여 명의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재정 형편, 신앙고백 등을 SNS에 남기고 함께 기도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12월 있었던 ‘만남의 잔치’였다. 그간 이웃사랑팀에서 숏하게 전도의 문을 두드리다가 하나님을 영

접한 지역 어르신 40여 명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에 94세 된 박선이(가명) 할머니와 18세 고등학생 손자 황수형(가명) 군이 초대되어 하나님을 영접하였다. 부모와 헤어진 채 할머니와 함께 쪽방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할머니 약값으로 내놓는 수형이는 이날 모든 이웃사랑팀 봉사자들의 아들이요, 손자가 되었다. 봉사자들의 관심과 기도로 수형 군은 대학에 진학했다. 할머니는 손자가 대학생이 된 모습을 보고 소천하셨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이후 36년 동안 영적 최전선 기지(spiritual front line)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섬겨왔다. 기독교의 기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막 12:30-31)이다. 교회의 전통은 묵숨 내 놓고 부르심에 응답하고(소명),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사회정의)하는 것이다. 36년 전 온누리교회를 창립할 때 교회의 리더십은 어떻게 이 사역을 꿈꾸고 실천했을까. 이 일을 감당한 교회와 선배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은 크게 5개 사역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과 소통하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첫째, 장애, 무의탁, 질병, 노숙 등 극한적 최저생계에게 처한 개인과 단체 55개소에 현금으로 지원한다. 둘째, 지역사회에 있는 오산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제2의 이승훈, 주기철, 한경직, 함석헌 같은 리더십이 양육되도록 기도와 격려를 하는 일이다. 셋째, 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등 지역사회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섬기는 방문 봉사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제한적이지만 이웃사랑팀 리더십과 브릿지33+공동체, S브릿지 공동체 봉사자를 중심으로 매월 한 차례 이상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넷째, 부활절, 성탄절 등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가 떡, 방한복, 쌀과 과일을 전달한다. 과거에는 지역사회 소방서, 파출소, 군 기지와 전철역 등 관공서를 찾았으나 지금은 주로 용산역 노숙자와 노숙자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한다. 다섯째, 추수감사절에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농촌 교회와 협력해 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르밧 프로젝트’를 한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에는 지난해 한 금액과 참여하는 순이 거의 두 배 늘었다. 엘리

아가 사르밧 과부에게 “통 안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왕상 17:14)”고 한 말씀이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모 기업에서 사르밧 프로젝트를 위해 고액현금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현금 일부를 사용해서 성탄절에 지진과 수해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포항의 이웃들을 찾아가 한동대 학생들과 협력사역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향후에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고독사로 고인이 된 분들의 장례를 돕는 ‘무빈소 장례’를 기획해서 장례의식은 외롭더라도 영혼은 찬송 속에 천국으로 가는 일을 돕고자 한다. 이 이웃사랑팀이 하는 여러 사역을 위해 더 많은 봉사자와 뜻있는 헌금이 모이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문의: 02-3215-34

34



박순길 장로
(사회선교부
서빙고 이웃사랑팀)

CGNTV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

B I B L E K I N G

<톨레레게>와 함께 하루에 한 줄 암송하고,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킹>에 도전하세요!

사전등록기간

2021년 10월 9일 ~ 10월 22일

* 사전참가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필수 시청 콘텐츠

톨레레게

친절한 설명과 반복 연습으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만나보세요

말랑말랑 톨레레게

그림으로 쉽고 재미있게
남녀노소 누구나
암송을 할 수 있습니다

톨레레게 게임

게임을 하다보니 어느새 암송?
톨레레게 204구절
성경 말씀을 즐겁게 익혀보세요



퐁당 앱, 바이블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퐁당 메인화면에 바이블킹 배너 터치하고 신청



문의 02-3275-9422